

손쉬운

민간요법 <기침>

빛깔있는 책들 <105> 민간요법 中 발췌

하늘타리씨, 살구씨, 패모 꿀

사용법 : 하늘타리씨, 살구씨, 패모를 각각 10그램씩 넣은 다음 물 한 사발을 붓고 2시간쯤 끓여서 그 물을 공복에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마시면 효험을 얻는다. 이같이 며칠을 계속해서 마시면 잘 치유되지 않는 심한 기침도 잘 낫는다.

효능 : 하늘타리는 민간에서 많이 심고 있는 여러해살이 초본 식물이다. 뿌리는 당뇨를 치료하지만 그 씨는 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므로 열이 있으면서 가래가 끓고 기침을 연발하는 증상에 효험을 나타낸다. 기침을 할 때 가슴이 아프고 가래가 많으며 밖으로 잘 뱉지 못하는 증상에 거담 효과를 본다.

살구씨는 감기로 마른 기침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유효한 반응을 얻는데 이때에 뽕나무잎을 배합해서 쓰기도 한다. 특히 열이 많으면서 기침이 심하고 호흡을 몰아쉬는 증상에 자주 활용된다. 동물 실험결과 진해, 거담 작용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유(油)는 장의 운동을 도와서 변비증을 풀어 준다.

패모는 시중에 팔고 있는 한약제인데 급성 기관지염으로 호흡곤란과 가슴에 통증이 있고 번열 증상과 설태(舌苔)가 노랗게 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에 유효하다. 실험에 의하면 기관지의 분비물을 뚜렷이 제거하므로 거담 작용이 확실하게 보인다.

호두와 참기름

사용법 : 호두의 겉껍질을 벗기고 호두 50그램에 참기름 50그램의 비율로 하여 1시간 동안 끓인 다음 한번에 한순가락씩 하루 3번 공복에 마시

면 감기로 인하여 잘 낫지 않는 오랜 기침에 효과가 있다.

효능 : 호두는 본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콩팥의 기능이 허약하여 정력이 감퇴되고 소변을 자주 보면서 천식과 해소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 또한 오래도록 잘 낫지 않는 해소에 인삼과 살구씨를 배합해서 꿀로 환(丸)을 만든 다음 빈속에 복용하면 좋고 부인들이 해산 뒤에 받은 기침을 할 때에도 인삼과 살구씨를 같이 넣어 끓여서 복용하면 좋다. 이런 경험에서 보면 호두는 자양성이 풍부한 진해제이다.

도라지와 가래나무 열매, 참쌀

사용법 : 도라지 가루 10그램에 참쌀가루 30그램, 가래나무 열매의 속살 20그램을 꿀로 배합하여 포도알 크기로 만든 다음 씹어서 하루 3번 공복에 먹는다.

효능 : 도라지는 진해, 거담 작용이 뚜렷하여 기관지 점막의 점액분비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이같은 작용들은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모든 해소, 천식을 비롯한 폐결핵, 폐농양으로 인한 해소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본다.

가래나무 열매도 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므로 진해 효과를 얻는다. 여기서 참쌀 가루는 기침으로 쇠약해진 체력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가래나무 열매를 구하기 어려우면 살구씨를 도라지와 같은 용량으로 배합하여 복용해도 좋다.

살구씨와 뽕나무 뿌리껍질

사용법 : 살구씨와 뽕나무 뿌리껍질을 각각 40그램씩 넣은 다음 물 1리터를 붓고 2시간 동안 끓여서 하루에 3번



◇하늘타리

나누어 식사 30분전에 마신다.

효능 : 살구씨나 뽕나무 뿌리껍질은 진해, 거담제로 탁월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다. 특히 기침을 할 때에 열이 심하게 나고 얼굴이 상기되면서 눈이 충혈되고 기침을 연발하는 증상을 다스린다.

살구는 대개 사용할 때 겉껍질과 뽕쪽한 끝부분을 없애는데 이것은 아주 적은 양의 유독한 청산 배당체 성분을 없앨 목적이다.

농민의 소리

저는 영일군 대보면 구만리에서 약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올 여름 극심했던 가뭄피해로 인해 재배 약초의 생육이 부진한 관계로 종자값은 작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시세로 1되(2℔)에 4천원 하던 백지가 올해는 2만원으로 경중 올랐고, 1되에 8천원에서 1만원하던 강활이 2만원으로, 2만5천원 하던 황금종자가 1되에 11만원이나 하는 상황입니다.

80만원 상당의 종자로 예전 같으면 8천원에 약초재배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겨우 5백평정도를 경작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종자값이 오른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수입개방화다 뭐다 해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약재만 생각하면 농사를 지을 의욕이 하나도 없습

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얼마 전엔 중국산 천궁이 고본으로 품명가장해서 수입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근값이 비싸서 농사를 짓느니 못짓느니 하는 판국에 값싼 수입약재가 시장을 점유하면 우리 농민이 설 자리는 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종자값은 종자값대로 오르고, 값싼 수입약재에 밀려 종자값도 못찾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누가 과연 약초재배를 하려 하겠습니까.

정부당국 그리고 유관기관에 호소합니다.

수입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민이 피땀 흘려 지은 약초농사가 들판의 퇴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자보호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영일군 대보면 구만리 엄길생(75)>

투고환영

<농민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이 꾸며가는 난입니다. 재비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얘기들과 알고 싶은 내용, 애로점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성의껏 게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대산빌딩 301호) 한국생약협회 편집국(FAX : 965-0643)

토종 및 저공해 농축산물전 11월 23일~25일 농업기술진흥관서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제35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하나로 지난 11월23



~25일 3일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전국 토종 및 저공해 농축산물전」을 개최했다.

토종 농축산물로는 강원 횡성군의 이팔·솔배추·청장미조·공취·경북 영양 수비초(고추), 전남 구례 산수유, 경기 포천 흑염소 등이 진상품으로 전시됐다.

제2녹색시대 식품전

「우리의 전통식품, 세계를 향하여」라는 목표아래 농림수산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제2녹색시대 전국 우수농산물 식품전」이 18~20일 3일동안 농협중앙회 대강당과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계약재배 안내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약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정신으로 **소백생약 영농조합법인**이 탄생했습니다.

우수한 생약재배로 UR 대치 및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양질의 국산 생약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95년 농가소득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재배를 실시하오니 많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재배 내역

재배품목	재배면적	수매내역	비고
길 경	100ha	추후결정	
백 출	50ha	"	
하수오	50ha	"	
기 타	100ha	"	

소백생약영농조합법인
임직원 올림

☎ (0572) 34-3330
32-8764

95년 재배할

종자·종근·종묘 분양안내

취급품목

- ◇ 당귀 ◇ 강활 ◇ 백지 ◇ 방풍
- ◇ 산약 ◇ 지황 ◇ 두충 등

한림농원

代表 金龍漢

경북 영주시 휴천3동 40-2
☎ (0572) 32-8764
34-3330, 32-8534